



보도자료 제 12/152 호
즉시 보도용
2012년 4월 27일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20431 USA

**아시아는 견실한 성장을 하고 있으나, 추가 균형 조정이 중요하다고
IMF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

아시아의 성장은 2011년 마지막 분기에 침체된 후 금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시아의 정책입안자들은 현재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없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하는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다고 오늘 말레이시아 캘라룸푸르에서 발표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REO)에서 보고되었다.

아시아는 취약한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의 견실한 성장을 유지해 왔다. 이것은 이 지역의 낮은 실업률과 견실한 신용 성장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했고, 2012년에는 지금까지 신흥 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본 유입이 회복되었다.

IMF는 아시아가 금년에 2011년과 대체로 같은 수준인 6퍼센트 성장하고, 2013년에는 약 6½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아시아의 신흥국들은 금년에 각각 약 8¼퍼센트와 7퍼센트 가깝게 경제가 확대된 중국과 인도의 주도 하에 계속 전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지역이 될 것이고, 아시아의 공업국들은 2.2퍼센트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이 보고서는 유럽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경우 아시아에 영향을 미칠 명백한 위협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선진 경제국에 대한 급격한 수출 감소와 외국 자본의 역류 현상은 이 지역의 경제 활동에 심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위협으로 에너지 가격의 인상과 변동성 증가를 언급했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과 에너지 및 식품 보조금으로 인한 예산 압력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상방위협도 있다. 거시경제 정책이 일반적으로 여전히 경기순응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2012년에 글로벌 경제와 금융 상태가 더욱 안정되는 경우 아시아 지역은 성장이 증가하고 과열 압력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 보고서는 2012년에 인플레이션이

다소 감소하여 평균 약 3½퍼센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정상화가 반영되어 있고, 몇 가지 경우에 수요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표적 범위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강력한 경제 및 정책 편더멘털이 유로 위기로부터 발생한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로부터 아시아 경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나, IMF는 아시아가 이 지역의 경제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국내 성장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균형 조정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의 최우선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

중국과 대부분의 ASEAN 경제국들의 무역 흑자가 감소함에 따라 글로벌 수요가 주요 흑자 경제국들로 전환될 것이라는 희망이 증가했다. 중국의 지속 가능한 균형 조정은 투자 주도 성장으로부터 소비 주도 성장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 달려있다. 인도는 투자환경의 개선과 무역 증진이 지속적인 인구학적 추이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ASEAN 경제국들은 국내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민간 투자 조건을 개선하고(간접자본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것 포함) 공공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